

# 시서비스 실증 30억·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47억 확보

내년 정부예산 광주·전남도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나

광주, 첨단 미래산업 육성 탄력  
전남, 고속도로·교량 건설 집중  
국회 심의 사업비 추가 반영 총력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광주시 3조 3244억원과 전남도 8조 8928억원 등 '2025년 예산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예산안 반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예산은 지켜내거나 증액하고, 미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최소의 사업비라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반영 사업비 반드시 지켜내야=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국회심의를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비 반영이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주요 사업은 미래 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2025년 정부 예산안 3억원·총사업비 235억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85억원),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42억원·430억원), 차세대반도체 첨단공정(64억7000만원·107억원) 등으로,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1398억원)도 전년 대비 100억원을 더 확보해 내년 하반기 완공에 동력을 얻게 됐으며, 영산강 예술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 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372억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256억원) 등이 반영돼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영산강·황룡강 'Y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 센터 건립(19억7000만원), 광주~강진 고속도로(280억원),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 산단 진입도로(81억원), 빛그린 산단 진입도로(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132억원) 등을 확보했다.

전남도도 SOC 사업의 경우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2단계 사업 구간인 완도~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37억원)가 반영됐다.

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 구간인 광주~강진 간 공사비(435억원)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4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남해고속도로 2단계 사업비(2692억원), 여수 화대~백야간 도로(2.76km·27년 준공) 건설비(693억),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도로(4.41km·27년 준공) 건설비(461억) 등이 확보돼 목표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도 이 밖에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 247억원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16억원(총사업비 155억원), 여수 세계 삼박람회 개최 지원비 23억원(248억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설계비 2억·150억)와 수산물소비자분산물류센터(설계비 4억·150억) 예산 등을 확보했다.

◇지역 미래 걸린 미반영 사업 되살리기 총력전=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누락 사업들을 되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광주시의 대표 사업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인공지능실증밸리 조성(2단계사업),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 지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와 순환경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제 체계구축, 수직이착륙기 비행 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미래자동차 인지부품의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등이다.

특히 이미 예산 369억원을 들여 부지까지 확보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사업 예산안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점이 뼈아프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반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호남권 SOC 사업 증액(2000억 이상),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20억),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 화산 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17억), 간접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15억) 등의 예산 반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언급 사업 전남도 SOC 예산 대부분 반영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등 속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예산(8조 8928억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들 상당수가 반영됐고 빈약한 R&D 연구개발 타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비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 언급한 전남의 SOC 사업으로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조 600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1조 5965억원),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3조357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2단계 사업 구간으로 지역민들의 20년 넘는 숙원 사업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강진~완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전남 남부권 관광과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토론회 당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정부 예산안 발표(27일)를 며칠 남겨놓고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곧바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37억)가 반영되는 타이밍까지 맞아떨어져 향후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조 6000억원)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용역비(3억원)가 민생토론회 이후 관라로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3조357억원) 사업은 전남도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진행 보류 요청 이후 국토부가 용산~여수 간 30분 단축(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지난 달 말까지 시·군 의견 수렴을 받아 검토중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사업이다. 그는 당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에는 이같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할 26개 사업 예산 247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K-디즈니 사업과 관련, 전남도는 'K 디즈니 조성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154억·총사업비 462억)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년 정부예산 677조원 규모 편성

올해보다 3.2% 늘어나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이며,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 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선형성 프로그램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부동산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외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상담문의 · 010-6648-0725